



강원도의 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혁수 의료급여조사부 차장

눈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눈부터 보게 되기에 그렇다. 마치 첫 인상을 주는 소통의 관문이랄까. 전철에서 어느 사람의 아름다운 눈을 보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나만 그럴까?

김동명의 시에 ‘내 마음은 호수요/그대 노 저어 오호/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옥 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 타’라는 구절이 있다. 시인의 마음과 간절한 사랑의 시선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호수, 하면 떠오르는 호수는 백두산 천지(天池)다. 우리의 영산 백두산의 정기가 다 모인 듯 맑고 신령스럽다. 아니 우리 한반도의 정기가 다 고이고 모인 듯 샘솟는 호수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영상 사진으로만 봐도 그 깊이와 위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이 바이칼호다. 언젠가 TV 프로 자연 다큐멘터리 시간에 보았는데, 아직도 그 맑고 푸른 기상이 가히 <아시아의 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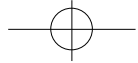
요즘은 사무실이건 어디서건 주변에서 맑은 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이제 정기를 잃었거나 눈도 같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공해가 심해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하여 유심히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젊은이들이 하나

같이 버스 안이건 전철에서건 어디서나 앉거나 서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열심히 액정화면을 살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눈은 항상 6시20분 방향에 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읽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연인끼리도 카페의 좌석에 앉아 마주보며 사랑의 밀어가 아니라 서로에게 문자나 영상을 보내며 말없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맑지가 않다. 충혈 되어 있기까지 하다.

마음의 호수가 오염되고 눈이 흐려진 것이다. 온갖 쓰레기 정보로 매몰돼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전 TV뉴스 시간에 요즘 강원도 춘천의 호수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다. 춘천이 고향인 나는 어린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공지천 호수로 나가 먹을 감고 물고기를 잡던 추억이 있다. 그러나 그 추억은 이제 전설이 돼버린 지 오래다.

2백 년 전 미국에서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살던 개척시대에 목마른 길손이 그의 오두막에 잠시 들러 마실 물을 찾으려면 빈 바가지를 내주며 “저 호수 물을 퍼 잡주세요”했다던가. 그러나 요즘은 이유야 어떻든 어느 나라나 누구도 호수에 몸조차 담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 일원에 사는 중·노년 부부 가운데 연애 시절 춘천 한번 다녀가지 않은 부부는 아마 없을 듯싶다. 공지천 독길을 거닐거나 보트의 노를 저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애뜻한 사랑을 나누었던 추억을 한 가지 쯤 간직하고 있을 것이



다. 그날의 감동이 오염된 호수로 하여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호수가 더 아름답고 맑게 가꾸지고 보존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호수의 물을 잘 지키라고 잘 가꾸어 달라고 물 관리 비용을 춘천에 보내주어야 할지 모른다.

물 관리비용 하나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해 전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춘천시민이 소양강 물을 쓰고 있으니 물값을 내시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봉이 김선달이 다시 살아나온 것일까. 소양강댐을 막아놓고 물값을 내라니?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우리는 빗물을 받아먹을 것이니 댐의 물을 한 방울도 춘천 쪽으로는 내려 보내지 마시오’라는 답신을 보냈던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치 사일록의 살 고기 한 근 이야기처럼 비극적 희극이 아닐 수 없다.

강물은 막을 수 없다. 영원히 가둬 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기에. 물은 호수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다.

나에겐 한때 절친하게 왕태를 하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헤어진 동네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가 며칠간 밤잠을 자지 못하다 죽을상이 되어 나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사귀던 여학생이 절교를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 위로 차 소양강 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그 때 나는 무슨 말이든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했기에

“네 심정 이해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그렇다고 저 호수에 빠져 죽을 작정은 아니겠지? 기다려라. 저 호수 밑 바닥에는 아직도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냐. 네가 그 여자를 사랑했던 만큼 네 사랑의 강물은 모이고모여 언젠가는 저 호수처럼 더 큰 눈을 가진 여자를 만날 것이다” 뭐 그런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 친구는 결혼을 했다. 하여 신혼집에 가보게 되었는데 먼저 만났던 그 친구의 여학생 친구의 눈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지금의 여자와 크기를 비교해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여학생보다 지금 여자의 눈이 더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단지 그 친구가 아내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그때, 저 눈이>하고 호수의 물빛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나도 험덕 소로우처럼 호수를 사랑하여 호수 곁에서 호수를 직접 청소하고 가꾸지는 못하겠지만 늘 호수를 그리워하며 그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든다. 호수를 닦고 싶어 얼른 할 일을 다 마치고 호수 곁으로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호수에 이는 잔잔한 물결과 낙조를 바라보며 물고기와 풀벌레 그리고 칠새들과 더불어 오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운 친구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 MP저널

